

Windows XP

윈도 XP 속에 공공 숨어있는 알짜배기 유틸리티 활용

윈도 XP 내장 유틸리티 한 방에 휘어잡기

윈도 XP에 포함된 유틸리티 중에는 상용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수한 것이 많은데도 이를 실무에 사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운영체제에 기본으로 포함된 유틸리티는 쓸 만한 게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번 호에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꿔줄 알짜배기 윈도 XP 내장 유틸리티 5가지를 소개한다.

글 · 이직 leejik@betanews.co.kr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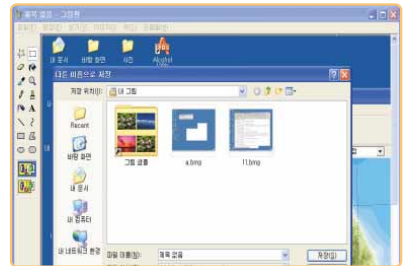
위를 둘러보면 쓸 만한 상용 프로그램이 무척 많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모두 구입해 사용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다. 윈도 XP는 몇 가지 유틸리티를 자체 내장하고 있다. 이것만 잘 활용해도 웬만한 작업을 거뜬히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윈도 XP에 어떤 유틸리티들이 들었으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살펴보자.

유틸리티 1 그림판으로 간단한 이미지 편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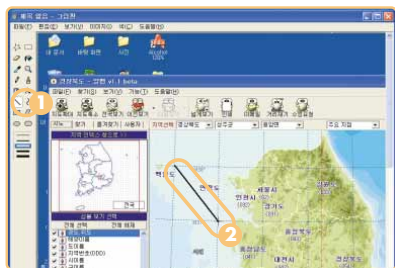
이미지 편집 작업을 할 때에는 포토샵이나 페인트샵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런 전문 프로그램들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데다가 사실 일반 사용자들은 그 기능의 반도 활용하지 못한다. 전문적인 이미지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윈도 XP에 포함된 그림판으로도 충분하다. 복잡한 이미지 작업은 불가능하지만 캡처나 편집 등 간단한 작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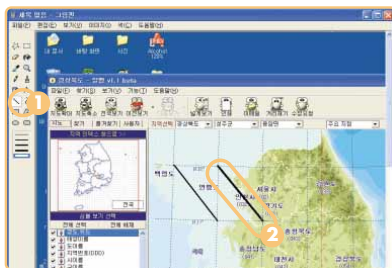
1 그림판이 있으면 캡처 프로그램 없이도 이미지를 캡처해 저장할 수 있다. 우선 <Print Screen> 키를 눌러 화면을 캡처한다. 이어서 그림판을 실행한 다음 '편집'→'붙여 넣기'를 선택하고 클립보드에 저장된 캡처 이미지를 불러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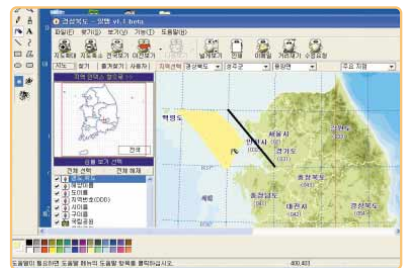
2 '파일'→'저장'을 눌러 불러온 이미지를 저장한다. 저장할 수 있는 이미지 형식은 BMP(단색, 16색, 256색, 24비트), GIF, JPG, TIFF, PNG로 다양하므로 용도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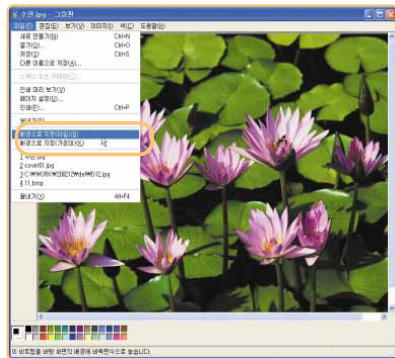
3 화면 왼쪽의 편집 도구를 이용하면 선 그리기나 그림 지우기 등 간단한 편집 작업도 할 수 있다. 직선을 그리려면 '선'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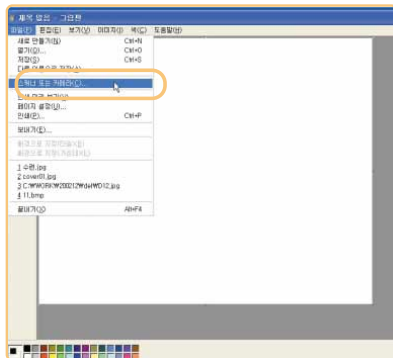
4 선 굵기를 변경하고 싶으면 도구 상자 아래쪽 목록에서 원하는 선 굵기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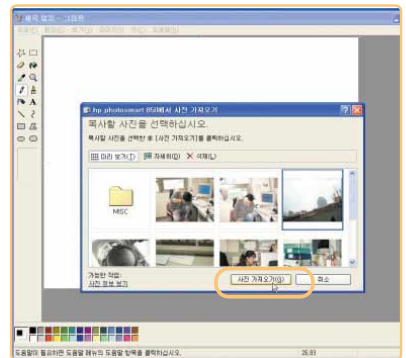
5 이미지에 색을 칠하려면 '에어 브러시'나 '브러시', '색 칠하기' 도구를 이용한다. 도구를 선택하고 화면 아래쪽 색상표에서 칠하고 싶은 색을 선택한 다음 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한다.



6 그림판으로 불러온 이미지는 바탕 화면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파일-저장'을 선택하고 편집한 이미지를 저장한 다음 '배경으로 지정(타입)'이나 '배경으로 지정(가운데)'를 선택하면 된다.



7 디지털 카메라를 PC와 연결하면 사진을 바로 그림판으로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다. '파일-스캐너 또는 카메라'를 선택하고 '사진 가져오기' 창이 열리면 디지털 카메라에 들어 있는 이미지가 섬네일로 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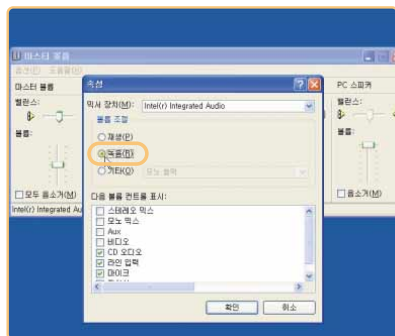


8 그림판에 불러온 사진을 선택하고 '사진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판에서 간단한 이미지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다.

유틸리티 2 녹음기로 윈도 효과음 만들기

녹음기라는 유틸리티를 활용하면 소리를 녹음, 병합, 재생, 편집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문서에 소리를 연결·삽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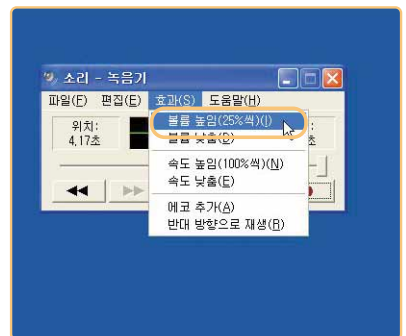
녹음기에서는 윈도 효과음을 녹음하기에 적합한 WAV 형식을 사용한다. 녹음기를 이용해 실감나는 윈도 효과음을 만들어 보자.



1 PC에 마이크를 연결하고 '음속성' 아이콘을 클릭한다. '볼륨 컨트롤' 창이 열리면 '음선-음속성'을 선택하고 '볼륨 조절' 항목에서 '녹음'에 체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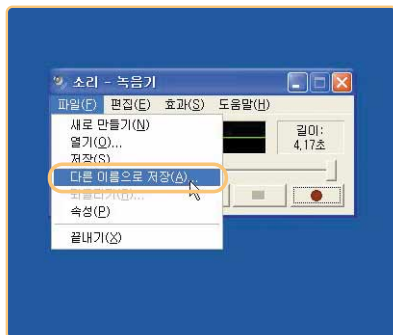
2 '마이크'의 '선택' 항목에 체크하고 '시작-모든 프로그램-보조 프로그램-엔터테인먼트'에서 '녹음기'를 실행한다. 녹음기가 실행되면 '녹음' 버튼을 눌러 효과음으로 사용할 소리를 녹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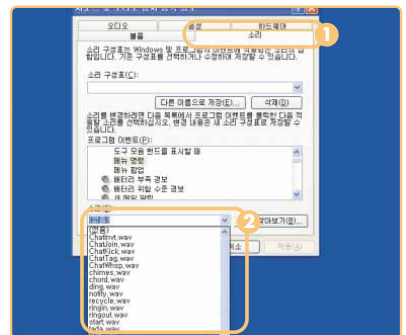
3 '재생' 버튼을 눌러 녹음한 소리를 들어보자. 소리가 작으면 '효과' 메뉴에서 '볼륨 높임'을 선택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윈도 효과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효과' 메뉴에서 '속도 낮춤'이나 '반대 방향 재생'을 선택하면 보다 재미 있는 효과음을 얻을 수 있다.



4 다른 WAV 파일을 불러와 녹음한 소리와 합치려면 '편집' 메뉴에서 '파일 병합' 버튼을 누르고 병합할 파일을 불러오면 된다.



5 편집 작업이 끝나면 '파일-저장'을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른다. 창이 열리면 '파일 이름' 항목에 원하는 이름을 넣고 'C:\WINDOWS\Media' 폴더에 저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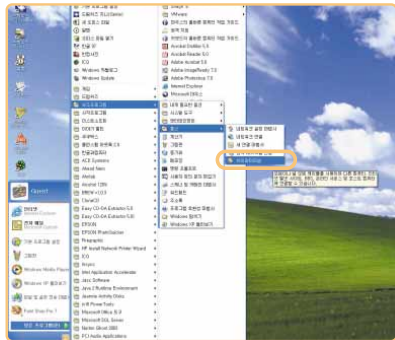


6 '제어판'에서 '사운드 및 오디오 장치'를 선택한다. 창이 열리면 '소리' 탭으로 이동한 뒤 '프로그램 이벤트' 항목에서 효과음으로 지정할 이벤트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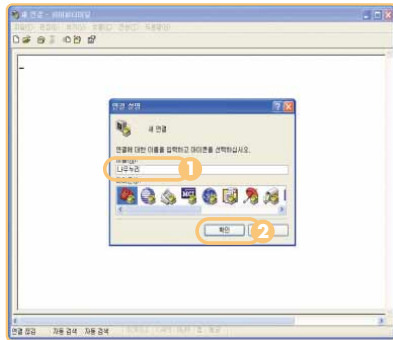
유틸리티 3 하이퍼터미널로 텔넷 연결하기

하이퍼터미널은 모뎀이나 널 모뎀 케이블을 사용해 다른 컴퓨터나 텔넷 사이트, 호스트 컴퓨터 등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텔넷 사용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애용하는 사람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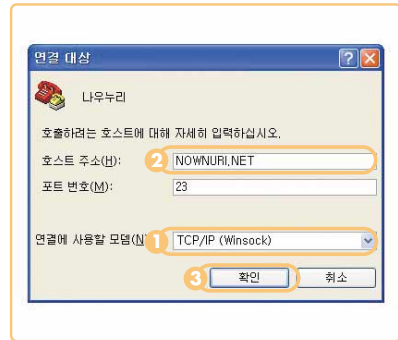
많다. 그동안 축적된 자료가 많고 동호회 활동이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하이퍼터미널을 이용해 텔넷 연결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접속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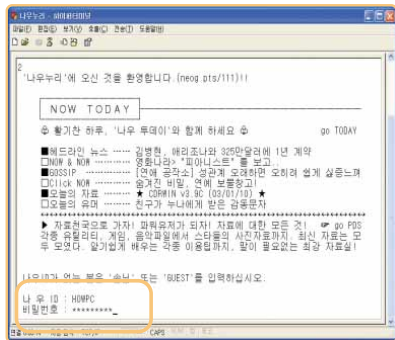
1 윈도 XP의 하이퍼터미널은 IP 주소를 통한 텔넷 접속을 지원하기 때문에 따로 텔넷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시작-모든 프로그램-보조 프로그램-통신'에서 '하이퍼터미널'을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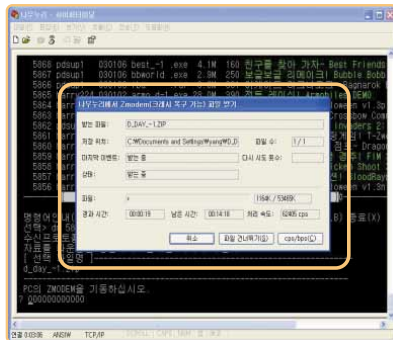
2 '연결 설정' 창이 열리면 '이름' 항목에 텔넷으로 연결할 서비스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여기서는 '나우누리'라고 입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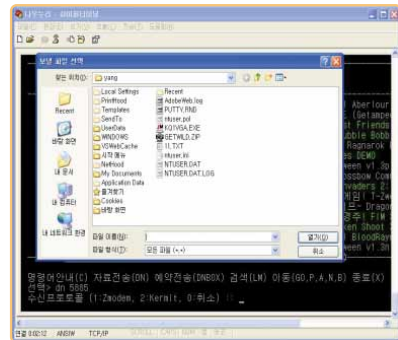
3 '연결에 사용할 모뎀' 항목에서 드롭다운 목록을 열고 'TCP/IP (Winsock)'을 선택한다. 설정 항목이 변경되면 '호스트 주소'에 텔넷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IP 주소나 도메인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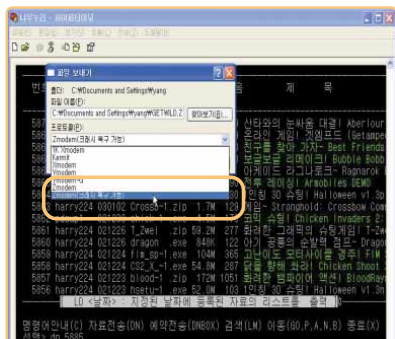
4 나우누리에 접속되면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하이퍼터미널은 프롬프트 창에서 지원하는 'Telnet' 명령과 달리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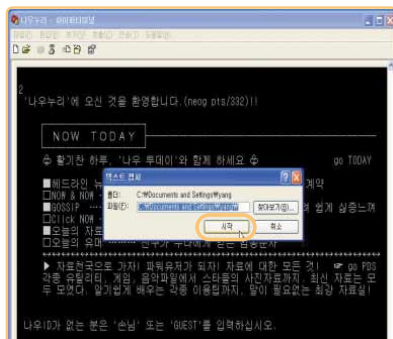
5 상대방이 파일을 전송하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파일 받기' 창이 열린다. 파일을 '내 문서'에 저장된다. 저장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전송' 메뉴에서 '파일 받기'를 선택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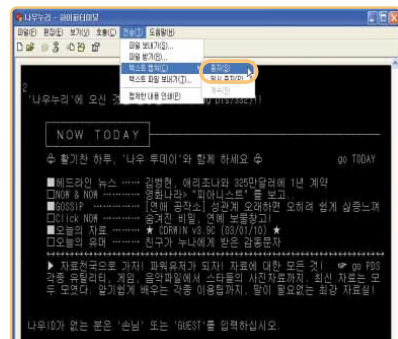
6 파일을 보낼 때에는 '전송-파일 보내기'를 선택해 '파일 보내기' 창을 열고 '찾아보기' 버튼을 누른 다음 전송할 파일을 선택한다.



7 '프로토콜' 항목에서 드롭다운 목록을 열어 파일 전송에 사용할 프로토콜을 선택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Zmodem(크래시 복구 가능)'을 선택하면 된다. 선택을 마치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파일 전송이 시작된다.



8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캡처해 저장할 수도 있다. '전송-텍스트 캡처'를 선택하고 '찾아보기' 버튼을 누른다. 곧바로 나타나는 창에서 캡처한 내용을 저장할 파일을 정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내용이 캡처된다.



9 캡처를 중지하거나 잠깐 멈추고 싶다면 '전송-텍스트 캡처'에서 '중지'나 '일시 중지'를 선택하면 된다.

유틸리티 4 기본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로 바꾸기

윈도 XP 계산기는 시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계산기와 모양이 비슷하다. 기능 역시 단순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반 사용자가 잘 모르는 기능이 하나 숨어 있다. 바로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공학용 계산기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다.

윈도 계산기를 공학용 계산기로 바꾸려면 '보기' 메뉴에서 '공학용'을 선택하면 된다. 메뉴를 선택하는 순간 고가의 공학용 계산기에나 있는 각종 복잡한 계산 버튼들, 즉 삼각함수, log, n! 등이 나타난다. 이외에 숫자가 일반 숫자인지, 함수용 숫자인지도 표현할 수 있다. 일반 사용자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지만 공학도에게는 꼭 필요한 계산기다. 윈도 XP에 포함된 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PC 앞에 앉아서 따로 공학용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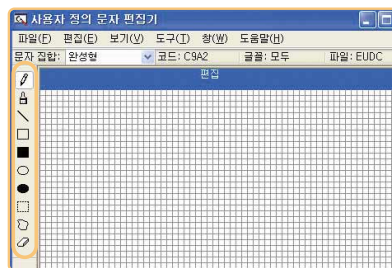
- ◀ 기본 계산기의 인터페이스
- ◀ '보기→공학용'을 선택하면 버튼이 많은 공학용 계산기로 변한다.

유틸리티 5 사용자 정의 문자 편집기로 나만의 문자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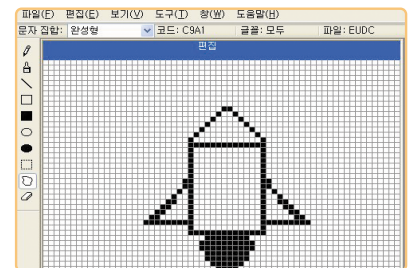
사용자 정의 문자 편집기는 사용자가 원하는 특수 문자를 문자표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틸리티다. 사용자 정의 문자 편집기를 이용해 등록할 수 있는 문자는 총 6,400개로, 기호나 도형도 만들어 넣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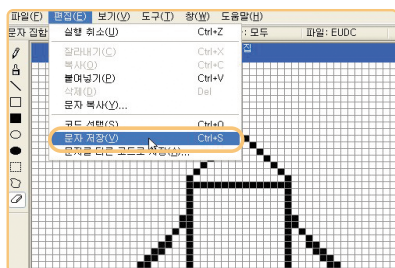
1 사용자 정의 문자 편집기를 실행하고 '코드 선택' 창을 연다. 여기서 특수 문자의 코드를 지정할 수 있다. 원하는 위치를 하나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른다.



2 화면과 같이 원하는 문자를 그릴 수 있는 편집 화면이 나타난다. '그린다'는 말에 눈치챌겠지만 꼭 문자만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면 왼쪽의 편집 도구를 이용하면 기호나 도형을 만들어 넣을 수도 있다.



3 '편집' 창에서 시험삼아 문자를 만들어보자. 여기에서는 로켓 그림을 만들었다. 편집 도구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4 완성된 문자는 '편집→문자 저장'을 선택해 문자표에 저장한다. 또 다른 문자를 만들고 싶으면 다시 '코드 선택'을 선택한다.



5 문자표에 등록된 문자를 수정할 때에는 '편집' 메뉴에서 '문자 복사'를 선택해 '문자 복사' 창을 연다. 창이 열리면 수정하고자 하는 문자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6 사용자 정의 문자 편집기에서 만든 문자는 윈도 문자표나 한글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글을 실행하고 <Ctrl+F10> 키를 눌러 '문자표 입력' 창을 연 다음 '문자 영역'에서 '사용자 영역'을 선택하면 방금 만든 문자가 나타난다.